

제주에서 양돈 꿈을 키우는 금성농장



취재: 김 동 성

▲ 농장앞에서 포즈를 취한 송명호 사장

끝없이 펼쳐진 초원위에 농장 세워

제주공항에서 국도를 따라 서남쪽으로 20여분 달리다 보면 눈이 모자랄 정도로 끝없이 나타나는 초원(이시돌목장)이 나타난다. 초원 사이로 난 고속도로로 들어서 20여분을 더 달려도 앞에 나타나는 전경은 끝없는 초원, 초원밖에 없다. 육지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시뻘건 민둥산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포장기 안 된 민가가 보이는 듯 싶더니 앞에 또 이어지는 것은 밭과 밭을 구획지어 놓은 키 1m

가랑의 돌담, 돌담, 돌담. 길을 따라 끝이 없을 정도로 늘어선 돌담을 보고 나서야 국민학교때 배운 “삼다도”의 한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꼬불꼬불한 시골돌담길을 몇 굽이 더 돌아서자 이내 작은 나무뿔말이 나타나고, 돈공들이 살아 숨쉬는 돈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16번지.

이곳이 바로 15년전 새끼돼지 2마리로 양돈을 시작하여 착실히 양돈 꿈을 키워가고 있는 송명호씨(39세·제주지방회 회원)가 부인과 네 자녀의 보금자리를 꾸며놓은 금성농장이다.

거침난 인생을 살게 해 준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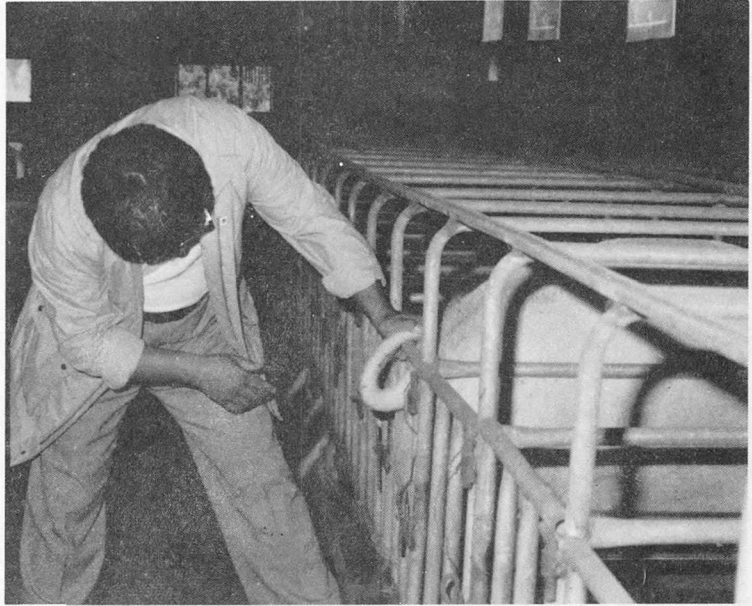
송명호씨는 조상대대로 32대째 제주도에서 살아온 제주 토박이로 돼지가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세어서 운동(권투)부에 들어서 생활했다. 운동을 하면서 그는 못된 것이라는 못된 짓은 혼자 도맡아 하고 사고뭉치여서 집에서는 아예 내어놓은 자식(?)으로 취급했다. 학교 졸업후에도 그는 같은 부류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빈둥빈둥 놀며서 무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몰랐다.

그러던 그가 68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 마침 배속된 부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그때 그는 돼지를 키우는 장병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돼지에 관해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이야...

그는 제대후 곧바로 이시돌 목장에서 백돼지 2마리를 분양받아 처음 양돈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배합사료도 없었고 사양기술이나 질병 관리 방법도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또 양돈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길 때라 그가 양돈을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주먹깨나 쓴답시고 싸움질만 하던 그가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킁킁 거리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의 심성(?)과 같이 점점 마음이 순화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돼지 사육에만 정신을 쏟았고 두수는 점점 늘어갔다. 필요한 돈사는 직접 블럭을 찍고 시멘트를 비벼 지었다. 그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맨손으로 일어선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영향을 받아 매일 노름과 술로 소일하던 동네 사람 30여명이 양돈을 시작해 지금은 모두 전업



▲ 돼지를 돌보고 있는 송명호 사장

규모로 성장했다고. 그래서 그는 현재 제주도에 돼지가 과잉 생산되는 이유중 하나는 자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배우자를 접지해 준 돼지

돼지두수가 100두 정도로 늘어난 75년도 겨울 어느날이었다. 그 당시에 그는 어머니의 성화로 선을 보고 약혼까지 했을 때였다.

하루는 현재의 처남이 암돼지 한마리를 몰고 그의 집으로 씨붙이기를 하러 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씨붙이기를 마친 암돼지

가 갑자기 자기집 안방으로 뛰어들어 이불을 깔아 놓은 아랫목에 엎드리는 것이 아닌가? “돼지 꿈” 이야기가 아닌 실제이야기다. 10여분간 아무리 때리고 끌며 내쫓아도 나가지 않다가 15분쯤 지나자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얼마 안 있어 약혼녀가 찾아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할일이 없어 돼지를 키우냐며 면박을 주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해 헤어졌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씨붙이기를 하러 왔던 처남의 소개로 누나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모가



▲ 가족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송명호 사장

부인을 임신했을 때 태몽을 꾸기만 하면 돼지가 새끼를 분만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이라 할 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돼지를 키우고부터 돼지와 관계된 인연이 많이 생긴다며 웃기도.

수의사 찾아 15km를 걸어다니며 공부해

다행히도 결혼 후 부인은 돼지 사육을 적극 거들어 주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보다 더 열성적으로 돼지를 관리했다. 언젠가는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부인이 돈사에서 3일간 나오지 않은 때가 있었고 식사시간 외에는 돈사에 붙어서 살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었다고 한다.

쭉쭉 성장하던 송명호씨에

게도 불황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부산보다 사료 1포당 400여원, 목포보다도 200여원이 더 비싼 배합사료를 먹여야 하는 제주양돈의 특성으로 볼 때, 79년 양돈불황은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돼지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사료값은 인상되어 버틸 재간이 없었다. 더군다나 자신의 양돈성공을 보고 양돈을 하게 된 동네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됐다며 몰아붙일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러나 그는 운동을 하던 놈이 양돈을 한다고 비웃던 과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쓰러지면 죽는다는 마음의 각오로 동분서주하며 축협 선배로부터는 밀기울을, 또 친척으로부터 보릿겨 등을 구입해 급여하면서 불황을 극복했다.

또 질병으로 인해 혼이 난적이 있는데 그 후론 수의사를 찾아 15km를 걸어다니면서 질의를 하며 질병에 대한 공부를 했다. 또 현 김상호 지부장을 찾아가 우수종돈을 분양받아 종돈개량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갔다.

이와같은 결과 현재는 4,700여평의 부지에 300평의 돈사를 지어 550두의 돼지를 사육하게 되었다.

송명호씨는 현재 제주지부에서 운명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막기 위해 2년전에 제주양돈조합을 설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으나, 조합에서 생산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송명호씨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돈업도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종돈업 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망했다.

또 양돈불황을 앞두고 양돈업등록·허가업체에서 돼지를 분산·수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은 점은 전체 양돈농가를 위해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